



이교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

이 부회장은 국내 IT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며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높은 학구열과 온화한 성품으로 지와 덕을 겸비한 수장(首長)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1987년 ‘정보통신진흥협회’로 설립된 KAIT(2001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개명)는 내후년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과거 통해 미래계획 확고히 할 것”

이교용 부회장은 KAIT 부회장 취임과 관련, “KAIT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녔으며, 그 동안 최명선 전임 부회장을 비롯,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 많은 발전을 일궈냈다”며 “정통부에서 오래 재직하는 동안 협회를 면발치서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실제 KAIT에 들어와보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규모가 커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이 부회장은

“‘복덕방’ 같은 협회를 만들겠다”

이교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www.kait.or.kr) 상근 부회장은 지난 12월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1975년 제1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 부회장은 99년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지원국장,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IT산업 부흥기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2003년까지 초대 우정사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9월부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제통으로서 여전히 IT산업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이 기대된다는 이 부회장을 세밑,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글 | 박영주 기자(모바일타임스, yjpak@cellular.co.kr)

이제 KAIT도 창립 20주년을 맞는 만큼 올바른 위상 정립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 20주년을 맞는 KAIT 입장에서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기를 지나 자립해야 하는 성인으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KAIT의 회장은 이기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이다. ‘상근부회장’의 역할은 회장을 보위하면서 실질적으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 하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일단 KAIT 구성원 전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기관이 되기를 희망했다. KAIT 위상과 지향점(방향),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를 내부에서 먼저 돌이켜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KAIT 미래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 부회장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보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취임 일성이 구성원들에게 나뉘대로 품고 있는 KAIT 미래비전을 제시토록 요구한 것. 개별 비전을 전체의 비전으로 결집해보자는 취지라는 게 이 부회장 설명이다.

KAIT는 연초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이 부회장 말에 따르면, “할 말 마음대로 해보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취임 초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 KAIT 미래 초석을 담보하겠다는 속내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것들이 2~3년 내 완성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재임기간 중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회원사 만족 · 직원 신바람 추구”

‘고객층별 차별화된 서비스’는 이 부회장이 강조하는 ‘고객만족’의 요지다. “고객과 애환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은 그 동안 KAIT가 철저한 고객지향에서 일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결과다.

이 부회장은 “우리 고객은 소속 회원사이며, 때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유사기관이나 전국민이 고객일 수도 있다”며 “기능 · 업무별로 차등을 두고 각 고객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제로 하는 것이 KAIT의 변화와 혁신.

양자간 ‘상생’을 위해 이 부회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현장 만남의 날’ (가칭).

이 날을 정해, 직접 전직원이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수렴,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인데, 물론 KAIT의 자발적인 참여가 동력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월 1회 새로운 형식의 조회도 꾸러갈 방침이다. 기존 형식화된 조회가 아니라, 소속 회원사 대표 등을 연사로 초빙, 이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들어보자는

것.

이 부회장은 “협회도 기업인화 해서 같이 기업인이 되어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협회 역시 기업 마인드로 고객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부회장은 이를 위해 “조직이 플렉시블할 것”을 주문했다. 형식이나 격식을 떨쳐버리고 ‘함께 뒹구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

물론 많은 것들을 한번에 ‘개조’하겠다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도 이 부회장은 잘 알고 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효율적인 변화”를 앞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다. 자기 맡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것도 결국 혁신이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팀장 중심의 체제변화도 유연하게 고민 중이다. 부처별 역할을 다할 때 조직이 커다는 건 비단 KAIT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닐 것이다.

이 부회장은 “내부 조직원의 변화와 고객만족의 새 협회상 정립, 미래중장기 계획 확립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외부로부터 저절로 협회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원들이 신바람 나야 한다”며 “일단 체계를 잡은 후 직원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또한 이 부회장은 염두에 두고 있다. ‘배지를 달자’는 운동을 제안한 것 또한 직원들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방편이다.

“적지 않은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이 부회장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당장 20주년에 걸맞는 위상으로 20주년을 치러야 한다는 데 이 부회장의 기대와 부담이 있다. 번듯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역시 이 기간 내 KAIT 숙원이다.

“〈고객 누구나 편히 들을 수 있는〉 복덕방 같은 협회를 만들겠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다짐이다. **K**